

한국 남성의 남자다움은 무엇인가?: 남성성에 대한 개념도 연구*

우 성 범†

가천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남성들의 남성규범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그 개념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남성성 개념의 이론적 근거에 따라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남성성 역할 기준에 순응하고자 하는 정도를 남성성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20명의 남성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서 남자답다는 것은 무엇인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후 남성규범과 관련한 핵심문장을 추출한 후 참가자에게 추출된 55개의 핵심문장에 대해 분류하고 그 중요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참가자들이 분류한 문항에 대해서는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남성규범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이차원의 축을 한국사회 문화에 대한 이론과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 집단관계 영역 대 개인내적 영역, 사회적영역과 위계성 추구 대 온정적 관계 추구로 명명하였다. 또한 하위 군집으로는 부양자, 리더쉽, 정서억제, 직무능력과 조직사회적응, 기대되는 남성적 능력, 힘과 통제의 6가지 군집이 나타났다. 각 군집의 특징과 의미를 한국사회문화 맥락에 따라 해석하고 연구의 의의, 제안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남성규범, 남성규범순응, 개념도, 남성성, 남성이데올로기

* 본 논문은 우성범의 박사학위 논문에 기초함.

† 교신저자 : 우성범, 가천대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글로벌캠퍼스 7층

E-mail : wsungbum@gmail.com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갈등이 심화되는 추세이다(이하나, 2019). 페미니즘과 더불어 그것을 반대하는 남성들의 대결은 인터넷 매체를 넘어서 현실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성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성들이 가진 신체적 사회적 능력에 대한 우월 의식에 바탕을 두고 성폭력과 차별을 휘두른다는 'Toxic masculinity' 라는 용어까지 등장해 남성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관심을 받고 있다(Brooks & Good, 2001; Meth & Pasick, 1990). 또한 남성성을 정의하는 다양한 관점들이 소개되면서 대안적인 남성성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양선희, 2018). 하지만 이러한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국의 남성규범을 탐색하고 그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규범으로서 남성성의 개념의 배경을 알아보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한국 사회의 남성성의 개념과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남성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남성성에 대한 연구는 시대에 따라 다른 형태의 이론과 개념으로 정의되고 연구되어왔다. 페미니스트 운동이 시작된 1970년대 이전에는 남성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지 주목을 받지도 못했다(Gray, 2012). 이 시기에 남성성은 단일 차원의 고정된 속성으로 이해되었다. 즉, 개인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수평선 위에 한 지점에 해당하는 특질을 가지고 있고, 남성성과 여성성 한 가지 속성만을 가질 수 있으며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관점을 취했다. 또한 이 시

기의 남성성은 유전적이고 자연적인 속성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문화적 맥락과는 별개의 특질이나 속성으로 여겨졌다(Smiler, 2004). 하지만 1970년대 이후로 페미니즘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관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Bem(1974)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한 가지의 차원의 양극단으로 가정한 기존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양성성이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즉 어떤 개인은 과묵하고 독단적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순종적이고 따듯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서 Bem(1974)은 Bem Sex Role Inventory(BSRI)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남성성을 측정하는 문항 20개, 여성성을 측정하는 문항 20개, 중립적인 문항 20개로 구성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을 각각 측정할 수 있게 하였고, 중립적인 문항으로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과 척도의 제작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단일 차원으로 보는 관점에서 더 나아가 양성성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양성성의 개념은 개인이 맥락과 상황에 따라 남성성과 여성성이 적절히 발휘할 수 있는 성역할 유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Smiler, 2004).

80년대 이후 남성성에 대한 연구와 남성이 데올로기 연구, 남성성 척도들은 모두 남성성을 기본적으로 내재적인 특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남성의 특정 규범을 따르라는 문화적 압력에 대한 반영으로 간주하는 규범적 관점을 반영하여 연구되었다(Levant et al., 1992; Levant et al., 2007; Mahalik et al., 2003; O'Neil, 1981, 1986; Pleck, 1995). 사회규범은 개인의 행동을 유도하고 제한하는 사회적 규칙과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Cialdini, Bator &

Guadagno 1999)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규범, 관습, 가치, 기준, 유행 등과 같은 사회규범을 학습한다(Sherif, 1936). 성역할 규범 또한 이러한 사회적 규범과 동일한 형태로 남성과 여성의 행동을 유도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Mahalik, 2000). 즉 사람들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부분의 남성 혹은 여성에게 허용되는 행동이나 허용되지 않는 행동, 기대되는 행동이나 기대되지 않는 행동을 배우게 된다. 예를 들어 남자아이가 남자는 핑크색의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남성들을 보면서 배우게 된다면, 영화에서 남성 히어로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남성적인 것으로 학습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형성된 남성성의 기준에 개인이 얼마나 따를 것인지는 개인적 변인들과 맥락적인 요인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Mahalik, & Rochlen 2006). 사회적으로 형성된 신념 체계와 관련한 규범적 신념과 가치를 지지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개인이 가진 남성성으로 형성되게 된다(Thompson & Pleck, 1995). 이러한 남성성에 대한 규범은 소년과 남성이 사고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을 설명하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매우 포괄적이며 영향력이 있다(Smiler, 2004).

따라서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남성성역할 기준에 순응하고자 하는 정도'를 남성성으로 정의하였고, 남성성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서구의 척도들도 남성 이데올로기의 프레임 안에서 제작되었다. Branon(1985)는 당시 사회에 남성 주류의 전통적 미국 문화에서 제시하는 남성적 기준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는 '여성성에 대한 거부', '지위와 성취에 대한 추구', '비 표현성과 독립성', '모험심과 공격

성'이다. 미국 주류문화에서 이상적인 남성성에 대해 위와 같은 이상적인 기준이 존재하며, 남성 개인이 그러한 문화적 압력에 대한 순응이 높을수록 남성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남성성의 측정과 연구는 남성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다. 즉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따라 개인은 다양한 형태의 남성성을 취할 수 있고, 이상적인 남성의 특징이나 속성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대치에 따라 개인이 습득한 남성성의 기준은 남성적 성 역할 규범(gender role norm)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성 역할 규범이 높을수록 개인은 여러 가지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Mahalik et al. 2003).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은 남성의 성격적인 특성이나 자존감과도 차별적인 구성개념이다(Parent, Moradi, Rummell, & Tokar, 2011). Mahalik과 그의 동료들(2003)은 이러한 남성규범에 개인이 얼마나 순응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남성규범순응척도(CMNI: Conformity to Masculine Norm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남성규범 척도는 전통적인 남성 성 모델에 기반한 9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1) 승리, (2) 감정적 통제, (3) 위험 감수, (4) 폭력, (5) 지배성, (6) 플레이보이, (7) 자립, (8) 일에 대한 탁월성, (9) 여성에 대한 권력, (10) 동성애자의 경멸, (11) 지위 추구의 11가지 요인을 가진 다차원적 남성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미국 내에서 지배적인 문화인 백인 남성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남성 개인이 이러한 남성 규범에 얼마나 순응하는지 측정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은 다른 남성성에 대한 구인이나 성격 혹은 자존감과도 구별되는 구성개념이다(Parent, Moradi,

Rummell, & Tokar, 2011). 예를 들어, 남성 역할 규범 척도(MRNI: Male Role Norms Inventory, Levant et al., 1992)와 개정판 남성 역할 규범 척도(MRNI-R; Levant et al., 2007)에서 측정되는 것은 남성 개인이 실제로 남성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성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유사한 구성개념으로는 성 역할 갈등 척도(Gender Role Conflict Scale, O'Neil, 1986)가 있는데 이는 제한적이고 일차원적인 남성 규범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남성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는 다차원적이고 각 차원의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성은 지위 추구요인에 대해서 높은 순응을 보이면서도 동성애 혐오 요인에는 낮은 순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남성성과 심리적 어려움

Mahalik와 그의 동료들(2003)은 남성의 역할 규범과 다양한 유형의 심리적 고통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인 남성 전반적인 적합성 수준뿐만 아니라 몇몇 특정한 남성 규범에 대한 적합성이 남성의 심리적 고통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규범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우월 및 권력의 남성 규범과 대한 높은 일치성을 보인 남성은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나타냈다. 남성 규범 중 지배력, 자립성 및 일에 대한 성취에 대한 높은 점수는 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리, 폭력, 여성에 대한 권력, 지배력, 플레이보이 및 자립의 추구는 적대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Mahalik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 결과

전통적인 남성 규범에 대한 적합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고통이 증가하였고, 자립의 규범은 우울과 관련 있게 나타났다. 이를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남성 규범을 따르지 않을수록 우울증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Mahalik의 전통적인 남성 규범 순응 모형(Conformity to masculine norms)과 유사하게 Levant와 Fischer(1998)의 전통적인 남성 이데올로기 모델(Traditional Masculinity Ideology) 또한 다양한 유형의 심리적 고통과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미국에서 지배적인 문화(서구, 백인, 이성애자)를 반영하는 남성의 전통 이데올로기는 남성에게 사회적으로 인정된 남성적 행동을 따르며, 특정 행동 방식은 피할 것을 요구한다(Levant et al., 2007, p.131). Levant와 Fischer는 서양 문화의 전통적인 남성적 규범을 (1) 여성적인 것 피하기, (2) 동성애자에 대한 공포와 증오, (3) 자립, (4) 공격성 (5) 성취와 지위 추구 (6) 성관계에 대해 비 관계적 태도 (7) 정서의 억제(Levant & Fischer, 1998; Levant, Hirsch, Celentano, et al., 1992)의 7요인으로 구분하였다. Good와 Mintz(2000)는 제한된 정서적 표현, 남성 사이의 제한된 애정 행동, 성행위와 경쟁의 중요성과 관련한 남성의 전통적 규범이 우울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Good와 Mintz는 남성들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도움을 쉽게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인 남성은 “복합적인 위험(compounded risk)”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였다(Good, Dell, Mintz, 1989). 그 외에도 전통적인 남성성은 감정표현 불능증과 관련이 높았으며(Berger, et al., 2005) 도움추구 행동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전통적인 남성적 규범에 대한보다 높은 순응을 보이는 남성들은 취약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피하고 적대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

하는 경향이 있었다(Jacupcak, Tull, & Roemer, 2005). 지난 30년간 많은 연구들이(Brooks & Good, 2005, Englar-Carlson, 2006, O'Neil, 2012) 남성들과 여성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어졌고 이는 '남성다움'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회문화적으로 남성중심의 성차별적인 문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으로 이어졌다(O'Neil, 2012). 특히나 '남성의 새로운 심리학'(NPM; New Psychology for Men: Levant & Pollack, 1995)이라고 불리는 남성 심리에 대한 모델은 지배적인 서구 남성들의 남성다움, 즉 정서적인 억제, 경쟁, 지위 및 성취에 대한 추구, 터프함과 같은 특성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대규모 표본을 통한 경험적 연구(Englar-Carlson, Stevens, Scholz, 2010, O'Neil, 2012) 통해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불균형이 계속 커지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남성과 관련한 문제들인 폭력, 동성애 혐오, 여성혐오, 무관심한 아버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태만 등의 문제가 모든 인종과 민족 집단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요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었다(Courtenay, 2011, O'Neil, 2012). 이러한 문제의 본질에는 전통적인 남성성의 규범에 따라서 남성이 사회화 되면서 심리적 발달이 제한되고 성역할 스트레스, 갈등이 초래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남성으로서 사회화되면서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이 감소되고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구하는 행동이 남성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피해야 할 행위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남성성이 남성들의 정서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남성성의 규범의 엄격한 순응과 관련 있다는 것은(Addis & Mahalik, 2003, Yousaf, Popat & Hunter, 2015) 전

통적인 남성성의 위기를 뜻하고 새로운 남성성에 대한 재 정의와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남성들과 작업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문제의 예방이나 진단, 치료적인 측면에서 시사점을 남겼다.

동아시아 문화에서의 남성성

전통적으로 동아시아권 문화에서는 서구문화권에서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특성으로 간주되었던 남성 규범들이 통합된 더 이상적인 남성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동아시아권 문화에서 이상적인 개인에 대한 개념은 더 지적이고 예술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중국 문화에서는 재능 있는 남성 학자가 아름다운 여성과 로맨틱한 사랑을 하는 소설들이 많이 존재한다(Wan, 2007). 일본문화에서의 이상적인 남성성은 무사도(武士道, bushido)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 이는 일본의 봉건 사회 무사의 윤리 도덕 규범과 가치의 근본을 이루는 사상을 의미한다. 무사도의 남성은 충성심과 자기통제가 뛰어나며 신체적, 물리적 공격적 성향을 보인다.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중국, 한국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남성성도 변화하게 된다. 전통적인 문화에서 강조되었던 남성성은 점차 자본주의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남성성도 비즈니스맨, 셀러리맨의 이미지로 변화되었다(Wan et al, 2007). 셀러리맨의 이미지는 열심히 일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성실히 돈을 버는 남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현상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지난 20년간의 국제경제사회의 영향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동아시아권의 남성성은 이러한 셀러리맨의 이미지를 벗

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Nagata, 2003). Louie (2012)는 동아시아권 국가들의 이상적인 남성성은 더 부드럽고 신사적이며 공격성 대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가족에 헌신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상적인 남성도 육체적으로 크고 강인한 남성보다는 직업윤리와 지능을 가진, 교육을 잘 받고 여성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특성들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서구 사회의 남성성이 권력과 통제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 성적 경험에 대한 강조, 큰 체구에 중점을 두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아시아계통 미국인들이 체구가 작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다는 연구와(Wong, Horn, & Chen, 2013),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 남성들이 신체 이미지와 관련한 부분 때문에 스스로를 남성적으로 느끼기 어렵다는 연구에서도 드러난다(Lu & Wong, 2013).

이러한 아시아와 서양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문화의 남성 역할 규범을 형성하는 공통점은 존재한다. Kim과 그의 동료들(1999)는 아시아 가치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규범에 대한 순응',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 '정서적 자기통제', '집단주의', '겸손', '효도'의 6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가치관에서 이상적인 아시아 남성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며 집안의 어른에게 순종하며 효도하며, 겸손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홀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다(Chae, & Foley, 2010). 이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과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은 서구의 남성 규범과 공통적이다(Mahalik et al., 2003). 특히 Owens(2010)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남성 규범에 있어서는 서구의 남성들보다 더 잘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대

로 아시아 사회의 남성들에게 기대되는 '겸손'과 '순응'의 규범은 '지배'와 '승리'와 같은 서구의 남성 규범과 상충된다. 예를 들면 효도나 가족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규범은 개인주의적인 서구적 가치관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서구의 전통적 가치는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 보다 앞서는 것들을 강조하지만 아시아의 전통사회의 문화는 집단, 가족의 성공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긴다. Chua와 Fujino(1999)는 아시아계 미국인 남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 특권층과 구성원의 상충되는 입장을 아시아계 미국인 남성이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계 남성들의 남성성이 서구권 남성들과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인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아시아계 남성들은 남성성이 그들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가사 일을 분담하는데 개방적이었고 백인 남성들과는 달리 남성성을 여성성의 반대 개념으로 보지 않았다. 연구 결과는 그들의 남성성에 남성성과 여성성의 요소가 함께 포함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아시아계 미국인 남성이 새로운 형태의 비 헤게모닉 남성주의를 형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권 문화와 관련한 남성성의 이해를 넓히고 세계화 시대로 변해감에 따라 융합되는 문화권 속에서 남성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 사회문화에서의 남성성

비교문화연구자들은 동아시아의 한국과 중국, 일본을 모두 집단주의, 권위주의 등을 가

진 유교문화권으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 (House et al., 2004; Schwartz, 1992). 하지만 국내 연구자들은 서구의 연구자들과 달리 한국 문화를 중국, 일본과 다른 단일문화 차원에서 다수의 한국문화의 특징을 설명한다(최재석, 1994, 김경동, 2004, 송호근, 2003, 정수복, 2007).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자아의식에서는 공적 자아의식이 강조되며,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서는 집단을 중시하고, 온정적, 위계적 특성을 가진 문화를 가지고 있다(유민봉, 심형인, 2012). 특히 남성성과 여성성과 관련해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혼재된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Hofstede (2001)의 남성성-여성성의 문화차원에서 한국은 남성성 지수 39로 조사대상 76개 국가 중에서 남성성 순위가 59 위로서 상대적으로 여성성이 강한 나라로 분류된다. 반면에 유교 문화에 기반한 가부장적 아버지가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공적 영역의 대표자로 강조된다. 이는 한국 문화가 성 역할 구별과 남녀 지위에서는 남성 우월주의적 문화를 가지고 있고, 사회 지배적인 가치는 여성주의적인 온정주의, 가족주의를 따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Cheevapitakpo, 2014).

이러한 한국의 남성성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다(장은영, 2014). 한국 사회의 변동과 함께 남성성의 변화 궤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국의 남성성이 근대 식민지 남성성, 해방 이후 산업화 시기에 군사화된 남성성, 생계부양자 남성성을 거쳐 디지털 시대에 여성 혐오 대안적 남성성으로 변화해 왔다고 설명한다(마경희, 문희영, 조서연, 김리나, 2017). 식민지 시대의 남성성은 피해자로서 다른 피지배자인 여성을 억압하는 기형적인 남성성을 나타내며, 해방 이후 군사시

기의 남성성은 군사화된 폭력을 수단으로 강인하고 반공적이고, 산업 전사의 남성 이미지를 상징한다. 이후 산업화 시기의 남성은 생산을 주도하고 남성 1인의 임금으로 생계를 충족하는 가족의 생계부양자로 여겨졌다(최선영, 장경섭, 2014). 이후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남성의 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이 남성과 여성이 모두 생계유지를 해야 하는 가족 모델로 변화하면서 점차로 남성들에게 돌봄과 양육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자녀를 돌보는 연예인 아버지가 TV프로그램으로 등장하고 남성들의 육아휴직의 개념이 확산 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한국사회는 20~30대 여성들 사이에서 페미니즘 선언과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성 평등주의의 관점이 대두되면서 이를 지지하는 관점과 방어하는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홍신영, 2018).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대 한국 사회의 남성 규범의 개념을 탐색하고, 나타난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문화적인 남성 규범의 독특성을 파악하고 기존의 보편적 남성 규범과 어떠한 공통점이 알아보려고 한다.

개념도

본 연구는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남성이 지각하는 남성 규범을 탐색하고자 한다. 개념도 방법론이란 연구 대상이 경험하는 현상의 영역과 구성 요소 및 잠재구조 등을 밝히는데 특히 유용한 방법으로, 질적인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다(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Trochim, 1989). 이 방법론은 특정한 현상에 대한 주관적 경험과 관점을 탐구 대상자들이 직접 그들의 고유한 의미 체계를 활용하여 범주화 한다는 점에서 다른

방법론과 출발점이 다르다. 이로써 연구자의 편견은 최소화되고, 가시적이고 명료한 인식 구조의 탐색이 용이하다(정찬석, 이은경, 김현주, 2004; 민경화, 최윤정, 2007). 그리고 질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구조화된 절차를 제공한다는 점, 질적 자료의 분석에 양적인 접근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유용성과 의미를 가지며 실증주의에 바탕을 둔 양적 연구 방법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주관적, 개인적 경험과 관련한 질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이 방법은 경험적, 현상학적 접근을 취하면서도 분석 절차가 구조화되고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탐색을 위해 수집된 질적인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법과는 다른 강점을 갖는다. 사전 참조 자료나 확립된 이론 체계가 부족한 분야의 탐색단계의 연구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연구 방법으로, 선행 연구가 미비한 본 연구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Johnsen, Biegel & Shafran, 2000; 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또한 귀납적 방식으로 데이터가 수집, 분석되기 때문에 연구자의 편견이 감소된다는 강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남성들이 지각하는 남성 규범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념도 방법은 사전 참조자료나 확립된 이론 체계가 부족한 분야의 탐색단계의 연구에도 적합하다(Johnsen, Biegel & Shafran, 2000; 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특히, 남성 규범의 긍정적인 측면의 경우, 비교적 최근 주목받기 시작해 선행 연구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념도 방법이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도 절차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 한국사회의 남성 규범에 대한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고, (2) 그러한 남성 규범의 요인들이 어

떠한 구조적 관련성을 가지는 탐색해 볼 수 있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19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모집하였다. 개념도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선행연구들(권혜경, 이희경, 2013; 민경화, 최윤정, 2007; 정찬석, 2006; Kane & Trochim, 2006)을 살펴보면 아이디어를 충분히 산출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의 수는 최소 10명 이상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면담을 위한 연구 참여자 수는 수집되는 정보가 포화되는 것(Seidman, 2009)을 전제로 20명의 남성 참가자로 구성하였다. 표집은 지역공동체, 종교단체, 서울지역의 회사, 대학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연구참가자 온라인 게시판에 모집공고를 하였고 연구에 참가를 희망하는 대상자로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연구 참가 전에 연구절차, 연구목적, 참가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가 동의서를 작성한 후 연구에 참가하였으며 연구참가 후 소정의 보상을 지급받았다. 연구 참가자의 평균연령은 36.63세, 표준편차는 6.73으로 12명은 기혼, 8명의 미혼으로 조사되었다.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사항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전반적인 연구 절차는 Kane과 Trochim(2009)

표 1. 개념도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나이	결혼상태	자녀수	직업
남성	32	미혼	없음	회사원
남성	32	미혼	없음	취업준비생
남성	34	기혼	없음	목회자
남성	28	미혼	없음	취업준비생
남성	27	미혼	없음	회사원
남성	32	미혼	없음	회사원
남성	32	미혼	없음	회사원
남성	34	기혼	없음	회사원
남성	28	미혼	없음	취업준비생
남성	27	미혼	없음	회사원
남성	45	기혼	2명	회사원
남성	45	기혼	2명	교수
남성	45	기혼	1명	의사
남성	45	기혼	2명	회사원
남성	38	기혼	2명	교사
남성	45	기혼	3명	회사원
남성	45	기혼	2명	교사
남성	38	기혼	3명	사업
남성	38	기혼	2명	회사원
남성	38	기혼	1명	회사원

에 의해 제시된 개념도 실행과정에 따라 초점 질문 선정, 아이디어 진술문 산출, 진술문 구조화, 자료 분석 및 결과 해석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개념도 준비 단계로, 연구자가 연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대상을 선정하여 주제가 되는 초점 질문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초점 질문은 “남자다운 것은 무엇인가?”이다.

두 번째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아이

디어를 산출하는 단계이다.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들을 만나 연구의 목적을 간단히 설명한 후 심층면담을 통해 최대한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연구자와 1대1 인터뷰를 가지면서 초점 질문인 ‘남자다운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초점 질문을 중심으로 다차원적이고 풍부하게 응답할 수 있게 연구자는 참가자에게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성에 대한 인식은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대인관계

에서는 어떤 모습이 남자답다고 여겨질까요?, ‘가정 안에서는 어떤 것이 남성적으로 여기집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측면은 어떻습니까?’ 등의 촉진 질문을 포함시켰다. 인터뷰 평균 시간은 30분이었으며, 인터뷰 과정은 모두 녹음되어 전사되었다. 전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연구 질문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반응을 제외하고 최종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추가적으로 최종 진술문은 심리학 교수 1인에게 남성성에 관한 진술문임을 검토받아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진술문 구조화 단계이다. 연구자에 의해 최종적으로 정리된 문장들은 각 연구 참여자들이 2차 면접에 참여하여 이를 분류하고 평정한다. 연구참가자 20명은 모두 2차 면접에 참여하여 진술문에 대한 분류 작업을 실시하였다. 분류 기준은 해당 문장들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문장끼리’ 모으는 것이며, 이들의 인지적 특성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문장이 하나의 범주로 이루어야 하며, 모든 문장을 한 범주로 모으지 말라(Paulson & Worth, 2002; Paulson, Truscott, & Stuart, 1999)는 두 가지 조건을 둔다. 분류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참여자들이 모두 각각의 진술문에 대해 해당 문장이 남성성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Likert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 5=매우 중요하다)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개념도 분석 단계로, SPSS 21.0을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과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원자료는 연구대상들이 핵심 문장을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연구 참여자들이 유사성에 따라 분

류한 결과를 동일 범주로 묶인 진술문은 0, 다른 범주로 묶인 진술문은 1로 코딩하여 개인 유사성 행렬표(Similarity Matrix)를 연구 참여자 수만큼 만들었다. 그 다음 참가자들의 파일을 합산한 집단 유사성 행렬표(Group Similarity Matrix: GSM)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GSM에 대하여 등간척도를 분석하는 metric MD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MDS는 개체들 사이의 비유사성을 이용하여 공간상에 개체를 표현할 때, 개체들 사이의 원래의 비유사성 정도를 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반복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표현된 최적 위치의 적합성은 Kruskal의 STRESS(Standardized Residual Sum of Squares)를 사용하였으며 stress의 값의 기준은 Kane과 Trochim(2007)이 제안한 적합도 평균 범위 .205-.365을 사용하였다. 다차원 척도법을 사용하여 x축과 y축의 좌표 값을 산출하였고, 이를 통해 각각의 핵심문장들이 지도위에 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두 차원으로 분류된 좌표 값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의 방법으로는 단일결합법(single linkage), 완전결합법(complete linkage), 평균결합법(average linkage), 워드법(ward's method) 및 센트로이드법(centroid method)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Ward방법을 사용하였다. Ward방법은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를 의미 있게 해석하는데 유용하다(Kane & Trochim, 2008). 군집의 수는 군집화 일정표와 덴드로그램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각 핵심문장들에 대한 중요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고 평균 값을 계산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 단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개념도 지도상에 나타난 점들의 상대적 거리와 각 군집에 포함

된 진술문들의 내용을 검토한 후, 같은 군집으로 묶인 문장들을 선으로 연결하고 적절한 군집의 수를 결정하여 개념도를 완성하였다. 개념도는 연구 참여자들이 함께 범주화한 빈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같은 범주로 빈번히 묶인 핵심문장들은 서로 가까이,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되었던 핵심문장들은 먼곳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개념도 상에 가까이 위치한 점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개념도의 군집과 차원의 명명은, 본 연구의 개념도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참여한 박사 수료 연구원 1인, 개념도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 심리학 교수 1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군집은 군집 내 문항들의 공통 특성을 근거로 명명되었으며, 차원은 각 차원의 극단에 위치한 군집의 위치 및 군집 내 진술문의 근접성을 근거로 해석되었다(김선경, 2011; Kunkel & Newsom, 1996).

결 과

연구 참여자들은 남성성에 관한 55개의 최종 진술문들을 최소 4개에서 최대 12개 범주로 분류하였고, 이들이 분류한 결과를 집단 유사성 행렬의 형태로 만들어 다차원 척도법 분석을 시행한 결과, 개념도 제작에 적합한 2차원 해법의 스트레스 값(stress value)은 .322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값(stress value)은 실제거리와 최적화된 거리 사이의 불일치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값이 적을수록 일치성이 높다고 해석한다(Kane & Trochim, 2009). 본 연구 결과로 나타난 스트레스 값은 개념도를 위한 다차원 척도 분석에 적합한 스트레스 값의 평균 범위인 .21에서 .37를 충분하게 만

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권혜경, 이희경, 2013; 최윤정, 김계현, 2007; Gol & Cook, 2004; Kane & Trochim, 2009). 다차원 척도법을 실시 후 위계적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각 문항을 축의 좌표가 유사한 문항들끼리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위계적 군집분석의 특성상 최종 범주를 구분하는 데에는 연구자의 이론적 지식이나 연구 문제의 성격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개념도에서 범주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다(Johnsen et al., 2000). Trochim(1989)은 개념도의 범주 수 결정 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수학적 기준이란 없으며 최적의 범주 수는 각 연구 주제의 맥락에 맞게 연구자들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석하기에 적절한 범주의 수를 선택하기 위해 개념도 선행연구들(권혜경, 이희경, 2013; 최윤정, 김계현, 2007)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사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를 참고하였다. 군집분석의 결과에서 군집 계수 값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단계들을 살펴보았을 때 6-9개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들이 분류한 범주의 수 이상을 선택하지 않았다. 셋째, 군집 간 진술문과 범주 내 진술문을 검토하면서 개념적 명료성, 각 범주 내 진술문들의 유사성, 그리고 범주들 간의 차별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총 6개의 군집 해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범주별 명칭 선정은 세 가지 지침(최윤정, 김계현, 2007)을 근거로 사용하였다. (1) 지도상에 진술문들 사이의 상대적 거리를 고려하였고, (2) 범주 내 진술문들의 유사성을 고려하였고, (3) 참여자들이 명명한 범주의 이름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른 범주별 명칭은

표 2에 제시하였으며 지도상의 분포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이 지각한 남성성에 관한 개념도(그림 1)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의 현상학적 반응으로 도출된 55개의 진술문들이 지도 위에 점으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점들의 위치는 다차원분석법 결과로부터 도출되었고 여러 참여자들에 의해 함께 분류된 빈도를 반영한다. 가까이 있는 점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점들보다 더 빈번하게 같은 범주로 분류되었음을 나타낸다. 그 결과 남성들이 지각하는 남성규범에 대한 개념도는 2개의 차원과 총 6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먼저 범주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범주는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과 친구들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부

양자'의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범주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묵하고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서억제'라고 명명하였다. 세 번째 범주는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에 대한 전문성과 성취, 조직사회에 적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직무능력과 조직사회적응'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범주는 가장 많은 1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내심과 포용력, 리더쉽과 추진력 등의 속성과 자발성과 행동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리더쉽'으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범주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길을 찾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물건을 잘 고치는 등의 능력과 관련한 내용을 구성되어 있어 '기대되는 남성적 능력'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범주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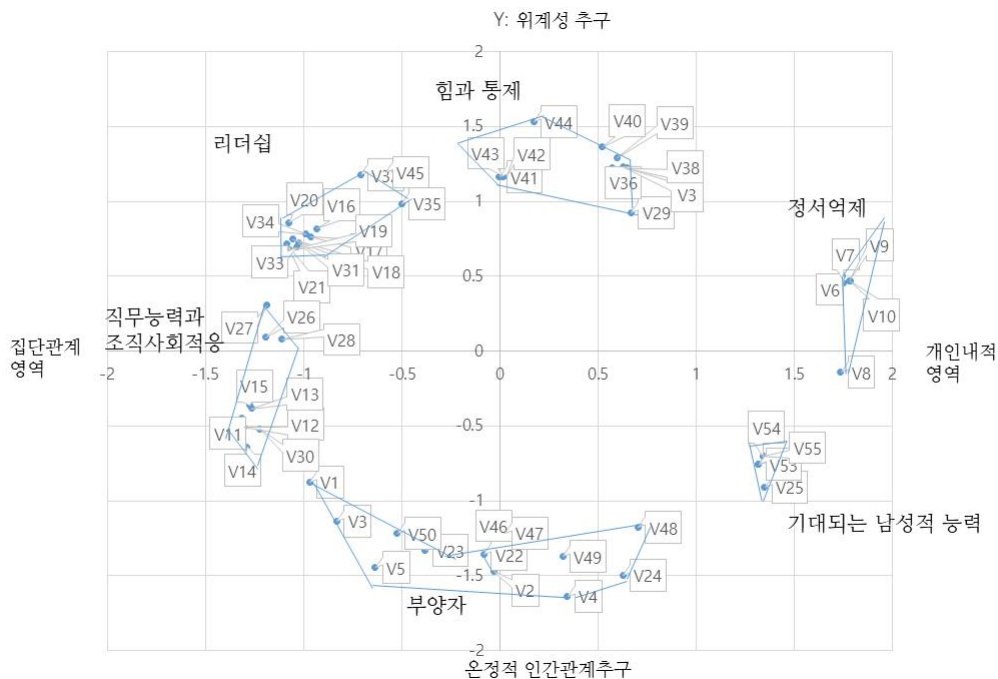


그림 1. 남성규범에 대한 개념도

표 2. 남성규범에 대한 개념도 문항과 중요도 평정

	평균	표준 편차
군집 1: 부양자 (13문항)	2.91	.87
1. 경제력이 있다	3.40	.82
3. 가족을 먹여살린다	3.80	.77
5. 가정의 여러가지 일을 책임진다	3.30	1.03
23. 여자와의 관계를 이끌어 간다	2.90	.97
50. 대인관계에서 쉽게 마음상하지 않는다	2.70	.92
2. 무슨일이 있더라도 가정에 돈을 벌어온다	3.70	.66
4. 육아 보다는 직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번다	3.10	.72
22. 여성과의 데이트 시 비용을 낸다	2.50	1.05
24. 여성보다 더 경제력이 있어야한다	2.80	1.11
46. 친구사이의 의리를 중요시 한다	2.70	1.03
47. 친구가 어려울 때 잘 도와준다	2.70	.80
48. 대인관계에서 세심함이 떨어진다	1.60	.68
49. 대인관계의 문제에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2.70	.80
군집 2: 정서억제 (5문항)	1.92	.73
6. 과묵하다	2.00	1.30
7. 정서표현이 둔감하다	1.60	.82
8. 세세한 감정들을 다 표현하지 않는다	1.90	1.07
9. 울지 않는다	1.80	1.11
10. 정서에 대한 억압한다	2.30	.92
군집 3: 직무능력과 조직사회적응 (9문항)	3.32	1.05
11. 조직사회에서의 적응을 잘한다	3.00	1.30
12. 윗사람(상사)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	3.40	1.14
13. 조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잘 견딘다	3.60	1.23
14. 그룹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다	3.20	.77
15. 어려운 환경에서 잘 견디고 적응한다	3.50	.95
30. 회사에 적응을 잘 한다	3.00	1.21
26. 자신의 일에 몰두한다	3.40	.68
27. 자신의 직무에 뛰어나다	3.30	1.22
28. 자신의 직업에 전문성이 있다	3.50	.95

표 2. 남성규범에 대한 개념도 문항과 중요도 평정

(계속)

	평균	표준 편차
군집 4: 남성리더십 (12문항)	3.43	.62
16. 인내심이 있다	3.90	.85
17. 포용력이 있다	4.00	.79
18. 책임감이 있다	4.10	.85
19. 리더십이 있다	3.20	.62
20. 추진력이 있다	3.20	.77
21. 여성을 보호한다	3.90	.85
31.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잘한다	3.20	.89
32. 더러운 일도 자발적으로 한다	3.10	1.17
33.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나서서 해결한다	3.60	.68
34. 타인을 대신하여 위험을 감수한다	3.30	.80
35. 대담하다	2.80	1.11
45. 행동력이 있다	2.90	1.07
군집 5: 기대되는 남성적 능력 (6문항)	2.82	.82
25. 여성보다 학벌이 높아야 한다	2.40	1.05
51. 길을 잘 찾는다	2.60	1.14
52. 물건을 잘 고치거나 조립한다	2.70	1.22
53. 기계를 잘 다룬다	3.20	1.20
54. 신체적으로 건강한다	3.20	1.01
55. 운동을 잘한다	3.20	1.01
군집 6: 힘과 통제 (10문항)	2.04	.91
29. 일회일비 하지 않는다	3.00	1.03
36. 힘과 권력의 추구한다	2.00	.65
37. 조화보다 힘을 추구한다	1.60	.68
38. 갈등이 있을 때 타협보다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1.60	.68
39.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한다	1.40	.50
40. 강함을 추구한다	1.70	.80
41. 개인 가정보다 사회나 국가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2.00	1.30
42.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2.10	1.17
43.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2.20	1.20
44. 미래에 대한 전망과 비전이 있다	2.80	1.11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힘과 통제'라고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X축은 '집단관계영역' - '개인내적 영역'에 대한 남성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X축의 왼편에 위치한 문항들은 직무관련 영역과 조직사회 적응에 대한 문항들이 많이 나타났고 X축의 오른편에 위치한 문항들은 개인 내적인 능력이나 개인이 정서를 다루고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Y축을 보면 위쪽은 타인을 통제하거나 힘을 바탕으로 지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에 Y축의 아래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가족을 부양하거나 여성을 보고하고 지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민봉, 심형인(2012)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개념화하는 연구에서 한국인들이 위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관계를 상대적, 가변적으로 인식하여 지위와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석하였다. 반면 대인관계영역에서는 배려, 협동, 정(情), 친근함 등의 정서 기반의 인간관계의 특징을 가진 온정적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Y축은 남성규범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위계적 특징과 온정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위계성추구'·'온정적 인간관계추구'로 명명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추출된 진술문에 대해 해당하는 문항이 남성성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5점 척도(1점=전혀 중요하지 않음, 5점=매우 중요함)로 평정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중요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리더십 범주(M=3.43)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직무 적응

(M=3.32)에 대한 내용이 나타났다. 반면에 정서 억제 범주(M=1.92)와 힘과 통제 범주(M=2.04)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각 범주에 대해 지각하는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방법을 통해 현대사회의 한국 남성들이 지각하는 남성규범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한국 남성들이 지각하는 남성 규범은 2차원의 좌표상에 여섯 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차원은 집단관계영역 대 개인내적 영역, 사회적영역과 위계성추구 대 온정적 관계 추구로 명명하였다. 군집은 리더십, 부양자, 직무능력과 조직사회적응, 힘과 통제, 기대되는 남성적 능력, 정서억제의 6가지 군집이 도출되었다. 이 결과는 남성성이 단일 차원의 남성적 특질이 아닌 다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첫 번째 군집으로 나타난 부양자 요인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책임지며, 여성을 보호하고 대인관계에서 지지적인 역할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념도의 Y축 하단에 가장 넓은 범위로 분포되어 있다. 이는 가족 안에서 가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의 지지자, 보호자 역할을 포괄하고 있으며, 가부장적인 권위나 의사결정권자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공급자로서 책임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가정이나 여성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의 남성의 역할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산업화 시대의 가족의 생계부양자 모델로서의 남성성과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으로 인한 남성의 가사 돌봄의 책임 확대와 육아의 참여 요구가 증가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남성의 역할은 경제적 생계부양자의 모델이 여전히 지배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배은경(2015)은 이를 '문화 지체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남성들이 가정 안에서 경제적 부양자의 역할보다 좀 더 유연하고 친밀한 모델이 남성 규범으로 자리 잡을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amir(1982)는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정감은 직업에서의 성공보다는 행복한 가족생활, 남편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족 안에서 관계적인 측면과 역할 분담이 유연한 남성성이 강조될수록 남성들의 심리적 안정감의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부양자 요인 중 연인관계, 친구 관계의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편익을 신경 쓰지 않고 도움을 주는 측면은 온정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한국 문화의 특성(유민봉, 심형인, 2012)에서 남성규범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는지 나타나는지 보여준다. Clark & Mills(1979)는 편익(benefits)을 주고받는 거래방식을 기준으로 공유적 관계(communal relationship)와 교환적 관계(exchange relationship)를 구분한다. 교환적 관계에서는 상호 호혜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편익을 주고 받지만, 공유적 관계는 상대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지만 댓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도 보상에 대한 의무감과 부채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한국문화는 공유적 관계를 특징으로 한 온정적 인간관계를 특징으로 하는데(유민봉, 심형인, 2012) 부양자 요인에서 나타난 남성 규범은 댓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고 희생하는

것을 인정받는 남성 규범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흥미롭게도 이는 현대 사회의 남성들의 좌절과 역차별로 표현되는 억울함, 이로 인한 여성혐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군가산점 제도, 데이트 비용, 더치페이, 결혼 비용을 주제로 한 남성들의 억울함과 여성혐오 현상은 희생자나 생계부양자 역할에 대한 남성 규범이 한국 사회에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에 부합하지 못한 젊은 남성들의 좌절로 해석할 수 있다(마경희 등, 2017).

두 번째 범주로 나타난 정서 억제 요인은 과묵하고 세세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며,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는 X축에서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규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성규범과 관련한 연구에서 정서억제는 항상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남성들이 정서표현을 적게 하는 이유는 성역할 긴장 패러다임을 통해 설명되어왔다. 성역할 패러다임의 창시자인 O'Neil (1981)에 따르면 미디어와 부모, 동료, 교사 등에 의해서 형성되는 성역할 사회화의 과정에서 남성들은 어떤 행동과 태도가 남성 사회에서 수용 받을 수 있는지 학습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서적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여성적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정서억제요인은 여러 연구들에서 인종, 문화권과 관계없이 공통적인 남성규범의 하나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정서억제에 관한 규범 또한 한국사회의 남성 규범이라기 보다는 동서양 문화권에서 모두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화적 압력임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정서억제 범주에 대한 중요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억제의 규범이 존재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남성 규범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남

성들이 인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 남성규범으로 정서 억제가 나타났다는 결과는 또한 남성들의 정서억제의 원인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그동안 남성들의 정서 억제에 대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 주장이 있어왔다. 첫 번째는 남성의 정서표현억제에 대한 이유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은 남성들은 정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서를 표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Brooks & Gilbert, 1995; Heppner & Gonzales, 1987; Levant, 1998; Pleck, 1984; Silverberg, 1986). Silverberg는 남성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조건화되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관점에서 Levant(1998)는 이러한 현상을 “규범적 남성 감정표현불능증(normative male alexithymia)”으로 명명하였고 남성들 사이에서 만연한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조적으로 Wester와 그의 동료들(2002)은 여성과 비교해서 남성의 감정표현 불능증이 만연한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남성 성역할 사회화를 첫 번째로 주장한 Balswick(1988)에 따르면 남성들의 정서표현의 제한은 그들이 정서를 표현할 능력이 없다가 보다는 표현하지 않기를 권장 받기 때문이다. Fischer와 Good(1997) 또한 남성이 내재화한 전통적인 남성적 성역할은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정서를 표현하려는 의지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 내렸다. 즉, 전통적인 남성적 성 역할을 내재화한 남성일수록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는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정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능력보다는, 그들이 느끼는 정서를 묘사하지 않으려는 경향성과 더 높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을 고려

할 때 본 연구에서 남성 규범으로 정서 억제 요인의 존재는 남성들의 정서 억제의 이유가 인식하는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문화적 압력의 결과로 느끼는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는 측면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남성 규범에 의한 정서 억제가 정서표현과정의 어떤 단계에서 억압 혹은 억제되는지 여성과 비교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나타난 ‘직무능력과 조직사회적응’은 사회적 영역에서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규범으로 경쟁력 있고 뛰어난 직무능력을 가지며, 회사나 소속된 공동체의 환경에 잘 적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세기의 산업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들면서 남성들의 역할 또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중요시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나 사회적 관계망을 더 중시하며,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선행연구(한경혜, 김주현, 김경민, 2003)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맨, 셀러리맨의 이미지에서 강조되는 것은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직업적 영역에서 경쟁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직무능력은 이러한 국제경제사회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남성 규범으로 알려져 왔다 (Taga, 2003).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윗사람에게 예의를 잘 지킨다’, ‘조직사회에 적응을 잘 한다’, ‘조직 생활의 어려움을 잘 견딘다’ 등으로 직무능력이 위계성을 중심으로 한 집단에서의 적응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권위구조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수직적 위계성을 인정하고 적응하는 것과 직장에서의 집단주의적 문화를 반영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집단중시 특성에는 기존의 집단주의 개념에서 강조하는 집단을 위해 개인의 목표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부분(Jackson et al., 2006: 886) 못지않게 혼자 힘보다 집단의 힘에 의지하여 생활할 때 개인의 목표달성이나 이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실용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유민봉, 심형인, 2012).

네 번째 범주인 '리더십'은 X축의 '집단관계 영역'의 부분과 Y축의 '위계성 추구'가 결합된 형태로 남성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대담하게 행동하며,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더십 요인은 개념도의 중요도 평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 특성으로 결국 문화적으로 남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즉 조직에서 혹은 사회적 상황과 통제와 지배적 특성이 결합되어 리더십을 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역할이론(social role theory)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주어진 사회적 기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며 그로 인해 조직 안에서도 조직적 특성보다 성역할에 대한 기대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Eagly & Johnson, 1990). 따라서 남성이 리더가 되었을 때 여성 리더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하고 문제 해결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특성을 보인다(Eagly & Johannesen-Schmidt, 2001). 남성 규범의 '리더십'요인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역할에 대한 문화적 압력이 존재하며 이는 사회적 역할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국내 연구 중 김은숙(2010)은 중년기 남성과 여성의 대인매력에 대한 개념도 연구에서 여성들은 자기통제, 절제, 감정적인 통제능력이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비하여 남성에게서는 삶에서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주체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리더십 요인이 한국문화에서도 긍정적으로 선호됨을 보여준다.

다섯 번째 범주인 '기대되는 남성적 능력'은 X축의 개인내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성이 운동능력이 뛰어나고 기계를 고치거나 길을 찾는데 여성보다 뛰어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인능력의 남녀 차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규범의 압력에 따라 개인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역할 규범에 맞게 행동한다는 성역할규범(Mahalik et al., 2003)의 맥락과는 다른 성역할 결정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남녀 능력의 성차는 그 원인론에 있어 대뇌편제화(cerebral lateralization; Bryden, 1979), 유전적 요소(MaGee, 1982), 문제풀이 전략선택(Bryden, 1980), 성숙속도(Sanders, Cohen & Soares, 1986; Waber, 1976), 성 호르몬(Hampson, 1990), 성사회화 경험(Baenning & Newcombe, 1989), 성역할 정체성(Signorella & Jamison, 1986)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Voyer, 1997, 재인용). 하지만 어떤 연구들에서는 남녀의 공간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지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는 고정관념일 뿐이며 실제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노연경, 2007; 정명진, 2004, 주지은, 2008, Colmen & Gotch, 1998; Feingold, 1988; Tuckey & Selvaratnam, 1993).

마지막으로 '힘과 통제' 범주는 Y축의 '위계성 추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강해야 하며,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구문화권의 남성 규범에서도 통제와 힘과 권력의 추구는 남성 규범으로 나타난다. 남성 규범순응은(CMNI-46)의 지배성이나 남성 규범

태도척도(MANI-II; Luyt, 2005) 통제요인, 개정판 MRNI(Levant et al., 2012)의 지배요인이 대표적이다. 힘과 통제, 지배와 관련한 남성 규범은 서구 사회의 남성 규범 중 가장 전통적이며 동시에 많은 사회학자와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들은 호기심이 많고 야망이 크며 독창적이며 경쟁적이고 여성은 애정이 많고 순종적이며 공감능력이 많고 친절하다는 엄격한 성별 역할을 사용하였고(Putnam, Tong, 1998) 이러한 이중적인 성역할 규범은 여성에 대한 사회통제를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남녀차별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에서 나타난 힘과 통제의 규범이 서구 사회의 남성 규범과 같이 여성에 대한 권력이나 플레이보이, 위험추구와 관련된 남성 규범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힘과 통제’의 문항들은 여성에 대한 통제지배, 가부장적 아버지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통제의 규범과 헌신, 지지의 규범은 상충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배를 상징하는 ‘힘과 통제’의 범주와 지지적 관계를 상징하는 ‘부양자’의 범주가 동시에 한국 남성 규범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적 신분 상승과 지위 추구의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수직적 위계 주의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불평등한 영향력의 차이를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유민봉, 심형인, 2012).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의 힘과 통제의 규범은 사회 안의 위계적 구조 안에서 권력과 권위를 추구하는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진행된 외국의 남성규범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동성애 혐오와 이성애자로서의 표현요인이 남성 규범으로서 존재했다. 서구권에서 개발된 남성규범순응척도(CMNI: Mahalik et al., 2003)에도 동성애 혐오의 규범이 존재하고 이는 개정판에서도 제거되지 않았다(Parent & Moradi, 2009). 남아프리카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된 남성규범 태도(Male Attitude Norms Inventory; Luyt & Foster, 2001)에서도 Hetero Sexuality요인이 Toughness, Control요인과 더불어 주요한 요인으로 측정되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남성성 척도(Meanings of Adolescent Masculinity: Oransky & Fisher, 2009)에도 ‘게이 친구가 많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와 같은 이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한 남성 규범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한국 남성 규범 요인에서는 이성애자로서의 표현이나 동성애에 대한 거부나 혐오와 관련한 요인은 인터뷰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성 소수자와 관련한 이슈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최근 연예인의 커밍아웃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성 소수자의 인권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긴 했으나(신동열, 2010) 이는 동성애 이슈 자체에 대한 논란이며 이성애자로서의 표현이 아직까지 한국에서 남성성에 대한 규범으로 자리 잡지는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 속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규범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서구문화의 남성규범과 한국사회의 남성규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남성성의 개념에는 긍정적인 요인들과 부정적인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남성성의 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적응적인 남성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긍정적인 남성성의 개발과 제안은 남성성이 남성 자신과 가족, 사회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함의는 정책이나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가자가 20대에서 40대로 편중 되어 50대 이상의 남성들이나, 10대 청소년들의 남성 규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사회가 급격히 변화해 가고 있으며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한국사회의 남성 규범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세대 간의 남성 규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명의 남성을 표본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는 개념도 방법을 실시하기는 충분한 표본이나 한국 남성 모집단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한 표본이다. 한국 남성 규범 요인에 대한 타당도를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을 바탕으로 탐색된 요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동 (2001).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서울: 한국학술정보
- 김은숙 (2010). 지각된 중년기 남녀의 대인매력에 관한 심리적 특성 개념도분석.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우 (2006). 성역할 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 사고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신애 (2005). 남성의 성역할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령 (1998). 성 역할 정체감 및 성취동기가 진로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서, 남정걸, 정지윤, 이용환 (1982).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연구논문 82-7). 서울: 한국정신문화 연구소.
- 김지현, 황매향, 유정이 (2004). 남성지배 학과 선택 남학생과 여성지배 선택 남학생의 성역할, 성역할 갈등, 진로미결정과 진로 정체감. 청소년 상담연구, 12(1), 132-142.
- 김지혜 (2006). 고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취동기 및 진로 성숙도와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노언경, 김아영 (2008). 차별기능문항 추출과 잠재평균분석을 통한 공간능력에서의 성차 연구. 교육심리연구, 22(4), 631-645.
- 마경희, 문희영, 조서연, 김리나 (2017). 지배적 남성성의 균열과 변화하는 남성의 삶.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87
- 송호근 (2003).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세대, 그 갈등과 조화와 미학. 삼성경제연구소.
- 양선희 (2018.2), [붓물 터진 미투] 남성은 어떻게 보나. 중앙선데이. <https://mnews.joins.com/article/22393989#home>. 2018.2.25. 572호 6면.
- 유민봉, 심형인 (2013).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3), 457-485.
- 이하나 (2019.1.02) '새로운 남성성', 페미니즘

- 과 만나다.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793>.
- 장은영 (2014). 2000년대 이후 한국 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적 해체와 남성성의 균열. *인문학연구*, 26, 89-115
- 정수복 (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당연의 세계 낮설게 보기. 서울: 생각의 나무.
- 정유성 (2003). 한국의 남성성 - 사람 죽이는 억지 춘향. 서울: 문학과지성사.
- 정유성 (2006). 교육담론에서 남성성의 문제. *평생교육학 연구*, 12(2), 69~90.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5(1), 82-92.
- 주지은, 노연경, 이규민, 김아영 (2007). 공간능력 검사의 성차 및 과제유형 효과와 효율적 측정 구조 탐색. *교육심리연구*, 21(2), 311-330.
- 주지은, 김아영 (2010). 공간능력과 공간검사 문제풀이 방략 사용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829-848.
- 최재석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3판). 서울: 현암사.
- 최지영, 박금주, 전숙영, 민하영, 김경은 (2012). 한국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 직무만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9(2), 251-267.
- 최희철, 김지현, 김병석 (2009). 남성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기본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검증: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10(2), 1229-1243.
- 홍인영, 홍선희 (2011). 여성의 성역할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4), 477-498.
- 홍신영 (2018). 여성의 정치적 힘과 가부장적 권력의 해체.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eevapitakpol, Arisara, (2014). 한국과 태국의 사회문화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dis, M. E., & Mahalik, J. R. (2003). Men, masculinity, and the contexts of help seeking. *American psychologist*, 58(1), 5.
- Balswick, J. (1988). *The inexpressive male*: Lexington Books/DC Heath and Com.
- Bem, S. L. (1981). *Bem sex-role inventory*: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Berger, J. M., Levant, R., McMillan, K. K., Kelleher, W., & Sellers, A. (2005). Impact of Gender Role Conflict, Traditional Masculinity Ideology, Alexithymia, and Age on Men's Attitudes Toward Psychological Help Seeking.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6(1), 73.
- Betz, N. E. (1995). Gender-related individual differences variables: New concepts, methods, and measures.
- Brooks, G. R., & Gilbert, L. A. (1995). Men in families: Old constraints, new possibilities.
- Brooks, G. R., & Good, G. E. (2001). *The new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with men: A comprehensive guide to settings, problems, and treatment approaches*, Vol. 1 & 2: Jossey-Bass.
- Bryden, M. (1979). Evidence for sex-related differences in cerebral organization. *Sex-related differences in cognitive functioning*, 121-143.
- Bryden, M. (1980). Sex differences in brain organization: Different brains or different strategi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2), 230-231.
- Chae, M. H., & Foley, P. F. (2010). Relationship

- of ethnic identity,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among Chinese, Japanese, and Kore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8(4), 466-476.
- Chua, P., & Fujino, D. C. (1999). Negotiating new Asian-American masculinities: Attitudes and gender expectations. *The Journal of Men's Studies*, 7(3), 391-413.
- Cialdini, R. B., Bator, R. J., & Guadagno, R. E. (1999). Normative influences in organizations. *Shared cognition in organizations: The management of knowledge*, 195-211.
- Clark, M. S., & Mills, J. (1979). Interpersonal attraction in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2-24.
- Coleman, S. L., & Gotch, A. J. (1998). Spatial perception skills of chemistry students. *Journal of Chemical Education*, 75(2), 206.
- Courtenay, W. (2011). *Dying to be men: Psychosocial, environmental, and biobehavioral directions in promoting the health of men and boys*: Routledge.
- Eagly, A. H., & Johannesen Schmidt, M. C. (2001). The leadership styles of women and men. *Journal of social issues*, 57(4), 781-797.
- Eagly, A. H., & Johnson, B. T. (1990). Gender and leadership style: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8(2), 233.
- Englar-Carlson, M., Stevens, M. A., & Scholz, R. (2010). Psychotherapy with men. In *Handbook of gender research in psychology* (pp. 221-251): Springer.
- Erikson, E. H. (1968). Life cycl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9, 286-292.
- Feingold, A. (1988). Matching for attractiveness in romantic partners and same-sex friends: A meta-analysis and theoretical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04(2), 226.
- Fischer, A. R., & Good, G. E. (1997). Men and psychotherapy: An investigation of alexithymia, intimacy, and masculine gender role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4(2), 160-170.
- Gol, A. R., & Cook, S. W. (2004). Exploring the underlying dimensions of coping: A concept mapping approa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2), 155-171.
- Good, G. E., Dell, D. M., & Mintz, L. B. (1989). Male role and gender role conflict: Relations to help seeking in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3), 295.
- Hadjar, A., Baier, D., Boehnke, K., & Hagan, J. (2007). Juvenile delinquency and gender revisited: The family and power-control theory reconceived.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4(1), 33-58.
- Hampson, E. (1990). Variations in sex-related cognitive abilities across the menstrual cycle. *Brain and cognition*, 14(1), 26-43.
- Heppner, P. P., & Gonzales, D. S. (1987). Men counseling men.
- Hoffman, R. M., & Borders, L. D. (2001). ASSESSMENT IN AC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4, 39.
-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Iwamoto, D. K., & Liu, W. M. (2010). The

- impact of racial identity, ethnic identity, Asian values, and race-related stress on Asian Americans and Asian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7(1), 79.
- Jakupcak, M., Tull, M. T., & Roemer, L. (2005). Masculinity, Shame, and Fear of Emotions as Predictors of Men's Expressions of Anger and Hostility.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6(4), 275-284.
- Johnsen, J. A., Biegel, D. E., & Shafran, R. (2000). Concept mapping in mental health: Uses and adaptation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1), 67-75.
- Kim, B. S., & Hong, S. (2004). A psychometric revision of the Asian Values Scale using the Rasch model.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7(1), 15-27.
- Kiselica, M. S. (2008). *When boys become parents: Adolescent fatherhood in America*. Rutgers University Press.
- Kiselica, M. S., & Englar-Carlson, M. (2010). Identifying, affirming, and building upon male strengths: The positive psychology/positive masculinity model of psychotherapy with boys and me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7(3), 276-287.
- Kiselica, M. S., Englar-Carlson, M., Horne, A. M., & Fisher, M. (2008). A positive psychology perspective on helping boys. *Counseling troubled boys: A guidebook for professionals*, 31-48.
- Kunkel, M. A., & Newsom, S. (1996). Presenting problems for mental health services: A concept map.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 Levant, R. F. (1998). *Desperately seeking language: Understanding, assessing, and treating normative male alexithymia*. John Wiley & Sons Inc.
- Levant, R. F., & Fischer, J. (1998). The male role norms inventory. *Sexuality-related measures: A compendium*, 2, 469-472.
- Levant, R. F., Hirsch, L. S., Celentano, E., & Cozza, T. M. (1992). The male role: An investigation of contemporary norm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 Levant, R. F., & Pollack, W. S. (1995). *A new psychology of men*. Basic Books New York.
- Levant, R. F., Rogers, B. K., Cruickshank, B., Rankin, T. J., Kurtz, B. A., Rummell, C. M., Colbow, A. J. (201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Male Role Norms Inventory-Adolescent-revised (MRNI-Ar).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3(4), 354.
- Levant, R. F., Smalley, K. B., Aupont, M., House, A. T., Richmond, K., & Noronha, D. (2007). Initial validation of the male role norms inventory-revised (MRNI-R). *The Journal of Men's Studies*, 15(1), 83-100.
- Liu, W. M., & Iwamoto, D. K. (2007).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Asian values, coping strategies, peer group influences and substance use among Asian American men.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8(1), 25.
- Louie, K. (2012). Popular culture and masculinity ideals in East Asia, with special reference to Chin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71(4), 929-943.
- Lu, A., & Wong, Y. J. (2013). Stressful experiences of masculinity among US-born and immigrant Asian American men. *Gender &*

- Society*, 27(3), 345-371.
- Luyt, R. (2005). The male attitude norms inventory-II: A measure of masculinity ideology in South Africa. *Men and Masculinities*, 8(2), 208-229.
- Luyt, R., & Foster, D. (2001). Hegemonic masculine conceptualisation in gang culture.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31(3), 1-11.
- Magee, B., & Berlin, I. (1982). Men of Ideas Some Creators of Contemporary Philosophy: [Dialogues with Fifteen Leading Philosophers].
- Mahalik, J. R., Locke, B. D., Ludlow, L. H., Diemer, M. A., Scott, R. P., Gottfried, M., & Freitas, G. (2003). Development of the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4(1), 3-25.
- Mahalik, J. R., & Rochlen, A. B. (2006). Men's likely responses to clinical depression: What are they and do masculinity norms predict them? *Sex Roles*, 55(9-10), 659-667.
- Meth, L. M., & Pasick, R. S. (Eds.). (1990). Men in therapy: The challenge of change. New York: Guilford.
- Nagata, K. K. (2003). Gender and disability in the Arab region: The challenges in the new millennium. *Asia Pacific Disability Rehabilitation Journal*, 14(1), 10-17.
- O'Neil, J. M. (1981). Male sex role conflicts, sexism, and masculinity: Psychological implications for men, women, and the counseling psychologis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 O'Neil, J. M., Helms, B. J., Gable, R. K., David, L., & Wrightsman, L. S. (1986). Gender-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s*, 14(5-6), 335-350.
- O'Neil, J. M., & Luján, M. L. (2009). Preventing boys' problems in schools through psychoeducational programming: A call to action. *Psychology in the Schools*, 46(3), 257-266.
- O'Neil, J. M. (2012). The psychology of men. *The Oxford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375-408.
- Oransky, M., & Fisher, C. (200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eanings of adolescent masculinity scale.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0(1), 57.
- Owens, P. (2010). Torture, sex and military orientalism. *Third World Quarterly*, 31(7), 1041-1056.
- Parent, M. C., & Moradi, B. (2009).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 and development of the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46.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0(3), 175.
- Parent, M. C., Moradi, B., Rummell, C. M., & Tokar, D. M. (2011). Evidence of construct distinctiveness for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2(4), 354-367.
- Paulson, B. L., Truscott, D., & Stuart, J. (1999). Clients' perceptions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17-324.
- Pleck, J. H. (1995). The gender role strain paradigm: An update.
- Putnam Tong, R. (1998). Feminist thought: A more comprehensive introduction. *NSW Australia Allen & Unwin*.
- Quinlan, K. M., Kane, M., & Trochim, W. M. (2008). Evaluation of large research initiatives:

- outcomes, challenges,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New Directions for Evaluation*, 2008(118), 61-72.
- Sanders, B., Cohen, M. R., & Soares, M. P. (1986). The sex difference in spatial ability: A rejoinder.
- Sanders, B., & Soares, M. P. (1986). Sexual maturation and spatial ability in college stud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2), 199.
- Sherif, M. (1936). The psychology of social norms.
- Signorella, M. L., & Jamison, W. (1986). Masculinity, femininity, androgyny, and cognitive performance: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0(2), 207.
- Silverberg, R. A. (1986). *Psychotherapy for men: Transcending the masculine mystique*. Charles C. Thomas Publisher.
- Smiler, A. P. (2004). Thirty years after the discovery of gender: Psychological concepts and measures of masculinity. *Sex Roles*, 50(1-2), 15-26.
- Spence, J. T., & Helmreich, R. L. (1980). Masculine instrumentality and feminine expressiveness: Their relationships with sex role attitudes and behavio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5(2), 147-163.
- Steinberg, L., & Silverberg, S. B.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841-851.
- Taga, F. (2005). East Asian masculinities. *Handbook of studies on men and masculinities*, 129-140.
- Tamir, L. M. (1982). Men at middle age: Developmental transition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64(1), 47-56.
- Thompson Jr, E. H., & Bennett, K. M. (2015). Measurement of masculinity ideologies: A (critical) review.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6(2), 115.
- Thompson Jr, E. H., & Pleck, J. H. (1995). Masculinity ideologies: A review of research instrumentation on men and masculinities.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118.
- Trochim, W. M. (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Eval Prog Planning*, 12, 1-16.
- Tuckey, H., & Selvaratnam, M. (1993). Studies involving three-dimensional visualisation skills in chemistry: A review.
- Voyer, D. (1997). Scoring procedure, performance factors, and magnitude of sex differences in spatial performanc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10(2), 259.
- Waber, D. P. (1976). Sex differences in cognition: A function of maturation rate? *Science*, 192(4239), 572-574.
- Wan, C., Chiu, C.-y., Tam, K.-p., Lee, S.-l., Lau, I. Y.-m., & Peng, S. (2007). Perceived cultural importance and actual self-importance of values in cultur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2), 337.
- Wester, S. R., Vogel, D. L., Pressly, P. K., & Heesacker, M. (2002). Sex Differences in Emo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0(4), 630-652.
- Wong, Y. J., Horn, A. J., & Chen, S. (2013).

- Perceived masculinity: The potential influence of race, racial essentialist beliefs, and stereotypes. *Psychology of Men Masculinity*, 14(4), 452.
- Yousaf, O., Popat, A., & Hunter, M. S. (2015). An investigation of masculinity attitudes, gender, and attitudes toward psychological help-seeking.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6(2), 234.

논문 투고일 : 2019. 04. 30

1 차 심사일 : 2019. 05. 02

게재 확정일 : 2019. 08. 13

What is the masculinity of Korean men? Concept mapping of masculinity

Woo Sungbum

Gach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constitute masculine norms of masculine in Korean society. The definition of masculinity was to conform to the male-dominated standard formed socially and culturally.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with 20 male participants were used for a concept mapping analysis to explore the configural representations of Korean masculine norms. After extracting the key sentences related to masculine norms, the participants sorted the 55 key sentences based on similarities and assessed the importance, which was then analyzed with multidimensional scaling method and cluster analysis. The result showed two dimensions, one representing social-personal domain and the other implying dominance-support domain as well as six clusters of caregiver, leadership, emotion suppression, job ability and organizational social adaptation, Expects the masculine abilities, power and control.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limitations, and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Masculine norm, Conformity to masculine norm, Concept mapping, Masculinity, Masculine ideology